

희대의 주식사기 2800명 450억 피해... 영광 들끓는다

전기차업체 가짜 임원에 속아... 파문 확산 郡 장미빛 전망에 투자자 늘며 피해 눈덩이

전국에서 2800명으로부터 450억을 쫓던 희대의 투자 사기로 영광이 들끓고 있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2800명이 넘고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도 450억원에 달해 향후 대규모 소송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더욱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피의자만 24명에 이르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 숫자와 피해 규모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비공개 수사 방침을 내세우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언론 등을 대상으로 검거 실적을 돋보이게 홍보할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피의자만 24명, 몸통급 간부 5명
영광=영광경찰은 17일 대마산업단 내 전기자동차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투자자를 꼬여 수백여원

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A사의 자회사임을 사칭한 B회사 간부인 정모(5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경찰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일반 투자자 192명에게 27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A사 고문과 실장을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장외주식을 주당 3000원에 판매해 45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A사의 임원임을 사칭한 자회사 간부들로서,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투자금 중 30%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천 개의 계좌주적을 통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낸 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와 B사의 관계, B사 간부급 인사들의 개입 사실, 피해자 수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모으고 있다.

◇피해자 2840명, 왜 피해가 컸나
= 경찰은 피의자들이 영광의 전기자동차 업체에 명함을 만든 뒤, 자신을 A회사 직원이라며 믿음을 준 뒤 투자자들을 속이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A사는 영광 대마산단 내 자동차 생산업체로, 자회사인 B사의 전체 주식(6050만주) 중

15%를 갖고 있었던 관계 회사였다. 두 회사는 2011년 업무협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4월 경영상의 이유로 파기된 상태다.

특히 A사는 '전기차 선도시'로 선정된 영광군이 적극 나서 대마산단 내에 유치한 기업으로, 군은 한때 A사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정씨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A사의 명함을 들고다니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군이 A사 유치에 적극 나섰다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저투자로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심지어 대마산단 화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린 회사

홍보팸플릿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속아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피해자를 비롯,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아놓은 돈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된 70대 노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840명. 수사가 진행될 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영광군이 청사신을 제시해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의자들의 감언이설이 더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니원침 (8798) 김종두



“전화 진료 후 처방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신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차례에 걸쳐 환자를 '직접(대면)' 진찰하지 않고 살 빼는 약의 처방전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낸 40대 여성 동승 지인 숨지자 투신

17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정모(여·44)가 떨어져 숨졌다. 정씨 가족들은 “자신이 낸 교통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화순시 도곡면 천암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정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학교폭력없는 사회 만들자”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과 광주 YMCA 회원들이 1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무등야구장 입구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장 잘 안다” 취업사기 2억 골짜

순천경찰, 50대 영장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7일 나모(5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5월 3일 순천시 조례동 D헬스클럽 사무실에서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 시켜 주겠다”고 속여 김모(여·50)씨로부

터 현금 1억30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은 등 최근까지 2명으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아 쫓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3범인 나씨는 D헬스클럽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순천시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줄 것”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2억원을 채무변제에 썼으며, 피해자들은 빚을 내 나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7년전 성폭행 DNA로 덤피

순천경찰은 1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6년 4월 7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모 오피스텔 앞에서 등교하던 초

등학교 6학년생을 이 오피스텔 3층 세탁실로 끌고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순천시내 한 음악학 탱크에 갇혀있던 김모(여)씨를 데리고 2만 원 유출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6일 오후 3시경 진도에서 배깃로 20여 분 떨어진 조도면 가

아랫 밸브 열린줄 모르고 탱크에 기름 넣다니...

진도 가사도 내연발전소 직원들 실수 2만 원 유출 토양·바다 오염 3000만원 손실

“밑 빠진 독에 기름 붓기?” 진도의 한 외딴 섬에서 ‘황당 사건’이 일어났다. 밑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기름 탱크에 값비싼 기름을 넣다가 2만 원 유출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6일 오후 3시경 진도에서 배깃로 20여 분 떨어진 조도면 가

사도, 이 마을 18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연발전소에서 경우 2만 원 가 유출되면서 청정해역은 기름띠로 뒤덮였다.

높이 10m가 넘는 대형 기름 탱크 2개의 보수 작업을 마친 발전소 직원들이 기름을 나눠 담는 과정에서

한쪽 탱크 아래 밸브를 열어 둔 것을 그만 지나쳐버린 것이다.

기름을 붓고 나서 직원들은 14시간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 탱크 아래쪽 땅에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기겁을 했다.

직원들의 실수 탓에 기름은 200m 떨어진 바다까지 흘러내렸다. 시가로 3000만원 상당의 기름이 바다에 버려졌다.

바다로 흘러든 기름은 자연 방사

돼 피해가 미미하지만 땅속으로 스며든 기름이 문제. 주민들은 기름을 작재를 이용해 17일 현재까지 기름을 닦아내고 있지만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발전소 측이 기름 유출 사고를 뒤늦게 보고했지만 기상악화까지 겹쳐 이를 뒤에야 진도군의 방제작업이 진행되는 등 허술한 일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목포해경과 진도군은 발전소 직원들을 상대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흡진 곰팡이 양약수술 간근 절도범

○아파트 등지에서 흡진 곰팡이를 팔아 번 돈으로 양약수술을 한 20대 절도범이 경찰서 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7)씨는 지난 8일 정오에 광주시 서구 동천동 A아파트에 사는 이모(43)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5회에 걸쳐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다.

○최씨는 지난 10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장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양약수술을 했는데, 경찰에서 “치아가 튀어나와 평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찬 교육!
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

모집기간 ~ 2013. 4. 30(화)

개강일 2013. 5. 2(목) ~
※스포츠마사지1급, 전로코칭 과정은 별도 개강.

접수 및 등록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원서부착용)

문의처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1023

과명	강사명	교육시간	주	교육연월	수강료(원)	비고
음악심리치료 전문가과정(초급)	이미경	목 19:00~22:00	15	20	300,000	-
CEO인간경영 리더십	김기현	목 18:30~22:00	6	30	300,000	인간경영 지도사 2급
미인대칭 평생행복강사	김기현	목 15:00~18:00	6	30	300,000	행복강사2급
다문화상담사/다문화교육사 2급 동시 취득	김성구	목 19:00~22:00	10	30	200,000	
자기주도학습	정승안	금 14:00~16:00	15	30	150,000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김현진 외2명	화 19:00~22:00	15	30	250,000	정서코칭/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뉴스포츠태권도 (글로벌특수교육)	신은호	화-수-목 10:00~11:00 14:00~15:00	15	20	200,000	태권도 단종특수
전로코칭	박성근	월-금 9:00~18:00	1	30	300,000	에니그램결론/ 심화 자격취득
스포츠마사지1급	정성호	월-목 19:00~22:00	4	30	150,000	스포츠마사지1급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을 위해 꿈과 재능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KWANGSH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 자격검증비, 재료비, 교재비는 각 과정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각 과정을 이수하시면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성북로 36
www.kwangshin.ac.kr